



“연기 재미 느껴…질리지 않는 배우 될 것”

“점점 연기하는 게 즐겁다는 걸 느끼게 해 준 작품이 있습니다. 시즌3도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올해로 배우 생활 28년 차를 맞은 박용우(51)가 드라마 ‘트레이서’를 통해 연기의 재미를 더 알게 됐다며 작품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데뷔 28년차 박용우
사회 고발성·휴먼 드라마
‘트레이서’ 오영 역 맡아
“멋진 어른 연기해 영광”

이 작품에서 조세 5국 국장 오영을 연기한 그는 국제정 애이스에서 무기력한 만년 과장이 되어버린 오영이 새로운 국제정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며 변화해가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소화해냈다.

박용우는 “오영은 개인적으로 봐도 멋진 사람이고 멋진 어른”이라면서 “연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속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후배이자

상관인 안상식(윤세웅 분)을 찾아가는 장면,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조직에 이런 어른이 있다면 선배든 후배든 서로 정의와 질서를 생각하며 살 수 있겠다는 후련함이 느껴졌거든요.”

기억에 남는 반응으로는 ‘눈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꼽았다.

“어떤 분께서 ‘눈이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라는 건 외적인 부분 중에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게 무척 좋습니다.”

국제정을 배경으로 오영·황동주(임시완)·서혜영(고아성) 등 조세 5국 팀원들이 세국 체납자를 비롯한 비리 세력을 척결하는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매회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며 호평받았다. 또 웨이브뿐 아니라 MBC TV에서도 방영되면서 다양한 시청층을 확보했다.

박용우는 “‘트레이서’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사회 고발성 드라마이자 휴먼 드라마”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행복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번 작품은 박용우가 드라마 ‘프리스트’ 이후 3년 만에 택한 미니시리즈 복귀작이기도 하다.

그는 “작가의 맘이 느껴지는 탄탄한 대본이었다”며 “오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캐릭터였다면 매력을 못 느꼈을 텐데, 능력이 있음에도 양심에 의해 흔들리는 역할이라 더 매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료 배우들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임시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고민하는 굉장히 뜨거운 배우였고, (손)현주 형과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일대일로 연기하는 장면이 많은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데뷔 30년 차를 앞둔 그는 ‘더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전엔 연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더 잘해야 할 텐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밖에 안 돼서 즐거워요. 더 성장할 곳이 있으니까요.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쌓이면 좋은 배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질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김인식 “야구 예능 반가워…은퇴 선수들 현역 때 실력 나와”

MBN ‘뺨 투 더 그라운드’ 감독

‘양산’ 양준혁부터 ‘니스남’ 니퍼트까지 은퇴한 전설의 야구 선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라운드를 밟는다.

MBN 새 예능 ‘뺨 투 더 그라운드’ 연출을 맡은 유일용 PD는 25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야구 팬으로서 내가 추억하던 선수들을 그라운드에서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에 설렷다”고 프로그램을 기획 배경을 밝혔다.

유 PD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모든 야구인이 존경하는 김인식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이다. 유 PD는 여러 차례 요청 끝에 김 전 감독을 섭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전 감독은 “최근 야구가 좀 침체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며 “선수단을 모집하면서 잘될까 싶었는데, 하다 보니 (실력도) 나이지고 재미도 있더라”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이 모은 팀은 은퇴 야구선수들로 구성된 ‘탑클래스’다. 양준혁, 안경현, 홍성흔, 현재운, 니퍼트, 김태균, 채태인, 이대형, 윤석민 등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감독은 “처음에 시합할 때는 (선수들이) 별로 못하더니 점점 현역 때 모습이 재연되는 게 흥미 있고, 앞으로 기대할 만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니퍼트는 두산에서 전성기에 던지던 볼을 서서히 던지면서 최근에는 (시



속) 147km까지 던지고, 어깨가 아프다던 윤석민도 최근엔 좋아졌다”고 귀띔했다.

다시 경기장에 선 선수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은퇴 이후 몸 상태는 조금 망가졌지만, 열정만큼은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강하다고 전했다.

양준혁은 “은퇴한 지 12년 됐는데, 현역 때는 배트를 짓기처럼 들었는데, 다시 타석에 서보니 첫 덩이처럼 느껴졌다”며 “그래도 전력 질주나 파이팅(열정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멋지게 웃었다.

안경현은 “첫날 유니폼을 입을 때 보니 다들 몸이 영망이었고, 눈도 침침해서 공이 막 3개로 보였

다”며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옛날 기량이 조금씩 나온다”고 말했다.

어깨 부상으로 이른 은퇴를 한 윤석민은 “한동안 야구 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악몽’이었는데, ‘뺨 투 더 그라운드’를 통해 다시 공을 던질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해 다른 선수들의 마음을 몽클하게 만들었다.

‘뺨 투 더 그라운드’ MC는 방송인 김구라와 가수 이찬원이 맡았다. 김구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제작발표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오는 29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임영웅 5월 2일 첫 정규 앨범 발표

미스터 트롯 출신...히어로 등 히트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임영웅이 첫 정규 음반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영웅이 5월 2일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임영웅이 그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히어로’(HERO), ‘이제 나만 믿어요’,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사랑은 늘 도망가’ 등을 내며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어 새 음반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임영웅은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



이고 있다.

뷔한 뒤 꾸준한 지도를 쌓아왔다.

202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고, 최근에는 트로트 외에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

/연합뉴스

CGV 관람료 또 인상...팬데믹 이후 세 번째

멀티플렉스 극장 CGV가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 번째 인상이다.

CGV는 다음달 4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500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2D 영화 관람료는 1천원 올라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IMAX를 비롯한 4DX, ScreenX, SPHEREX, 스타리움 등 기술 특별관은 2000원, 씨네드렉스, 템퍼시네마, 골드클래스 등 고급관은 5000원씩 인상된다.

무비머니(영화관람권)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CGV 측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돼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제작 및 투자·배급 등 영화산업 생태계 전체가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팬데믹 1년 차였던 2020년 10~11월 관람료를 인상했고,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인상했다. 업계 1위인 CGV가 인상함에 따라 조만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